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제2次 中國 생약분야 訪問계획：協會는 수입開放 및 北方修交 開放時代를 對備하여 昨年8月에 任員團 12名으로 구성 10泊11日間 시찰방문을 實施한바 있었으나 見聞을 넓히기 위한 余件造成 目的을 위하여 今般 제2次 시찰 訪問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分事務所長級 12名으로 구성된 訪問團이 오는 18日부터 10泊11日間에 걸쳐 中國南部 雲南省—北京—심양—연길(白頭山)등 코스를 시찰하게 될 것이며 主로 생약生産지역 및 의약公司등을 둘러볼 豫定으로 되어있다。

○生藥栽培 기술研究委員會 설치계획：協會는 今年中으로 재배기술 研究委員會를 구성코 長期眼目에 依한 事業目標가 確定되는데로 特種品種을 選別하여 栽培技術開發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專門要員 선발에 對한 本部服案外에 산하 各 市道支部에서도 有能한 要員을 추천해 줄 것을 當付하고 있다。(公文指示：생약6－72호、91·7·23일부 참조)

○산하 行政및 生産지도委員會 發足：협회는 지난 6·13일 생약6－58호로 시달한바 있는 지도 委員會구성문제를 7·20일 마무리 짓고 委員에게 各各 위촉 발령을 하고 8·1일부로 公式發足키로 하였다。

(本報1面 참조)

○삼도시호(계약재배분)作況에 對한 現地답사：日本계약社인 쯔무라(주)에서 내방한 재배담당관(사와다과장代理)과 本會 재배室長은 지난 7·14일부터 17일간에 걸쳐 全南지역 삼도시호 作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現地답사를 실시한 바 있다。(계약재배중인 회원은 아래 답사결과에 의한 관리요령을 참조할 것)

『삼도시호』재배 관리 요령

장마철을 맞아 시호 생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가뭄을 극복하고 재배에 성공하신 여러분께서 아래와 같이 재배 관리 요령을 실시하여 주무로써 다량의 수확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삼도시호』재배가 잘된 농가 일지라도 1차 적심시기를 놓친 농가가 대부분이라고 사료되오니 하하루속히 적심 및 제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적심 요령

○목적 ①땅위에 움직이는 영양을 집중 시킨다。②도복을(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한다。③땅 표면에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한다。④통기성(通氣性)을 도와준다。⑤수확량을 증가 시킨다。(증가율 20%이상)

○도구：잘드는 낫이나 제초기를 사용

○적심(순치기)：발아 시기에 따라 적심 시기도 약간 다르다。

①1차：25㎝정도 자라면 5㎝정도 자를것。6월중

②2차：35㎝정도 자라면 5㎝ 정도 자를것。7월중

③3차：45㎝정도 자라면 5㎝정도 자를것。8월중

④4차：줄기를 50㎝이상 키우지 않을것。

ㄱ、적심은 날씨가 좋은 때에 실시 하는 것이 좋다。

ㄴ、적심은 적기에 잘해야 뿌리가 굵어진다。

ㄷ、적심 한것은 밭 밖으로 버린다。

ㄹ、1차 적심이 제일 중요하므로 적기에 적심하여야 한다。

※요경：잘드는 낫이나 제초기로 5㎝정도 자를 것。(옆으로 친다)

4、병충해

○탄저병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처리보다 부분 발생한곳을 손으로 따러 밭에서 멀리 버린다。(부분 발생 탄저병 잎을 밭에 버리면 전 면적에 확산된다。)

○전 면적에 확산되었을 경우 마이센게 약제 40－50ℓ(단보당)를 살포하여 준다。

5、배수관리：배수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근부병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

6、재배에 궁금점이 있으신 농가는 (02) 969－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생산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다시 연락 올리겠습니다。(재배담당관)

▲各支部록생회 운영

○경남支部：지난 7·5일 김장한 지부장 主管으로 月例록생회를 함양지부에서 소집하고 기간중 지역 생약재 유통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본부계획인 행정및 생산지도 委員을 2名 차출코 본부에 추천한 바 있다。

○충남支部：지난 7·16～17일 양일간에 걸쳐 大川에서 분대규 支部長 主管으로 定例綠生會를 召集、기간중 이 地方生藥 유통정보를 相互交流하면서 今年度 夏季 휴양겸 관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강원支部：지난 6·28～30일간에 걸쳐 최윤철 支部長 主管으로 속초에서 定例綠生會를 召集、기간중 生藥유통현황토의와 協會支部對策등을 논의하면서 夏季 휴양겸 관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전북支部：지난 7·20일 무주에서 김종근 支部長 主管으로 月例綠生會를 召集 기간중 이地方 生藥유통정보를 相互交流하면서 관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경북支部：7·31일 慶山支部에서 定例 록생회 개최 예정。

○충북支部：7·31일 支部 主管으로 定例록생회 개최예정。

▲生藥栽培教育 出講協助計劃

○경북 울진군 사무소：오는 7·26일 이 地方 농촌지도소 主管으로 실시하는 栽培技術 教育에 出講支援：協會本部에서 事務局長이 出講協助

○전북 부안군 사무소：오는 7·26일 이地方 농촌지도소 主管으로 실시하는 재배기술교육에 出講支援：協會本部에서 기획실장이 出講協助

生藥-한의업계 "藥材비상"

사향-웅담등 禁輸 불가피

희귀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일명 워싱턴 협약)에 한국이 올해안으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한방 생약재를 생산하는 제약업계와 한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사향 웅담등 희귀 동물에서 채취하는 주요 한약재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따라서 연간 1천여원 규모의 국내 한방 생약제조 업계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보사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한약재의 다소비국으로、특히 곰 사슴등 동식물을 약용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국제동물보호협회 등의 지탄의 대상이 돼온 점을 감안、더이상 이 협약 가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안으로 가입한다는 방침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한방재는 사향으로、지난해 모두 1백85만6천달러어치가 수입됐으며、올해는 워싱턴 협약 가입에 대비、업체들이 수입물량을 늘림으로써 상반기에 이미 1백3만6천달러어치가 수입됐다。

韓方醫保 이용률 1%

消保院 천7백명 조사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의료보험혜택 범위가 너무 좁거나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보험 이용률은 전체 한방의료기관진료 건수의 1%에 불과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원장 朴弼秀)은 최근 지난1년동안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을 이용한 전국의 환자나 그 가족 중에서 표본추출한 1천7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다。그 결과 「한방의료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1%인 4백34명이었으며、도시지역에 사는 젊은층일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의료보험 미이용 응답자의 33.2%로 가장 많았다。〈조선일보〉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1면에서 계속〉

①비장이 과로한 경우 입술이 뻣뻣하여 움직이기가 거북한 사람은 비장이 과로한 상태를 나타낸다。

②비장이 위태로운 경우 입술이 트고 탄력이 없는 사람은 비장이 위태로운 징조이다。

③입술색이 좋은 경우 입술의 위아래 상태가 좋고 혈색이 건강한 사람은 비장이 건강하며 비장의 위치가 정상적이다。

④입술이 비뚤어진 경우 입술의 한쪽이 위로 올라갔거나 하여 비뚤어진 사람은 비장도 그 위치가 한편으로 비뚤어져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비장의 기능이 정상일수 없다。정상이 못되기 때문에 입술이 비뚤어졌다고 보아야 타당하리라。

그러므로 비장과 위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입술이 붉고 기름기가 흐르는 것이다。

만일 비장이 약하면 먼저 입술이 창백하면서 윤기가 전혀 없고 잘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술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대증현상(對症現象)인 비장과 위장을 점검하여 이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느 때 돌연히 어떤 자극을 받아 공포에 떨게 될 경우 입술이 창백해진다。이는 심장의 동계와도 관계가 있지만 특히 비장의 반응작용입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에 의한 진단

1、위에 열이 오르면 윗니에 치통이 온다。

치아(齒牙)는 인간의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소화작용의 첫 관문인 치아가 손상을 입으면 소화흡수 계통에 원활한 작용을 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건강의 손실은 제쳐 놓더라도 우선 치아가 없으면 음식의 맛을 전혀 감각할 수 없게 된다。

동양 고대의 오복관은 다분히 이 후자에 비중을 두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그만큼 식도락의 미식은 성의 욕망과 함께 인간본능의 심연을 차지하고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첫째의 일이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데 있다는 점에서도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그러기에 연로한 분들의 건강의 척도를 이치아에 두고 이를 오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한 치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에 연관된 장기를 치아의 증상을 통해 식별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치아와 연관된 내장은 신장과 위장이다。

이 때문에 위에 열이 오르면 윗니에 치통이 일어나게 된다。그리고 윗니의 치통은 신경(腎經)의 경락과 아랫니의 치통은 대장경의 경락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병종별로 분류하면서 적응 한방을 소개한다。

①치통과 오한의 경우 치통이 오면서 오한(惡寒)이나 오열이 있을 때는 풍한(風寒)의 발산약(發散藥)인 세신(細辛)이나 형개(荊芥)가 주약인 세신탕(細辛、蔓荊子、升麻、黃連 등)이나 백지탕(防風、荊芥、白芷 등)을 복용하면 좋다。

②신장이 약할 경우 이가 솟아올라 움직이면서 아픈 것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을 복용해야 한다。

③위에 액이 있을 경우 이가 단순히 아플 때는 위에 열이 있기 때문이므로 청위산(升麻、牡丹皮、當歸 등)이나 사위산(瀉胃散) 등을 활용 복용할 일이다。

④풍열의 경우 풍열(風熱) 때문에 이뿌리가 솟아올라 아플 때에는 거풍습(祛風濕)의 약인 독활산(獨活、羌活、川芎)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⑤충치의 경우 충치의 경우는 정통산(當歸、細辛、白朮 등)을 쓰는 것이 통례이나 양의인 치과 병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충청북도지부

지부장 이종철
괴산군 사무소장 임재석
영동군 〃 김운호
진천군 〃 이지대
청주시 〃 우명규
단양군 〃 장지홍
제천시 〃 이광우 (도공판장장겸직)
청원군 〃 최종운
제원군 〃 이한승
보은군 〃 황상경
음성군 〃 연기홈
청주시 공판장장 정진석
단양군 〃 신상섭
옥천군 〃 지필성